

### 세계여성불자대회

12월 28일 베트남서

세계여성불자들의 소풍의 장인 제11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베트남의 호치민시에서 개최된다.

사키야다타(Sakyadhita)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뛰어난 여성불자들'을 주제로 전세계의 비구니와 재가여성불자들의 업적을 집중 조명한다. 토론은 △여성불자와 지도력 △문화와 언어는 대화-뛰어난 여성의 정의 △여성불자들과 법지구적 빈곤 △여성불자들의 다양한 삶 △문화의 교차로에서 불자교육 등을 주제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 개발도상국의 비구니와 재가불자들이 참석을 위한 후원도 진행 중이다. (02)722-2101

### 수화찬불가 초급반

원심회 18일부터

수화로 청각장애우님들의 깨달음을 돕는 조계사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수화 찬불가, 수화 초급반을 모집한다.

수화 찬불가 수업은 10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심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찬불수화로 단체와 개인지도를 병행한다.

10월 8일부터 3개월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수화 초급 수업을 실시한다. 강좌는 실용적인 측면을 대폭 강화해 타 단체의 초급과정과는 차별화된 심화교육을 시행한다. 수화통역을 목표로 하는 수강생에게는 일대일 맞춤교육을 시행한다. 모두 참가비는 무료다. (02)720-4528

이상언 기자

# “개산대재 이제 우리들 세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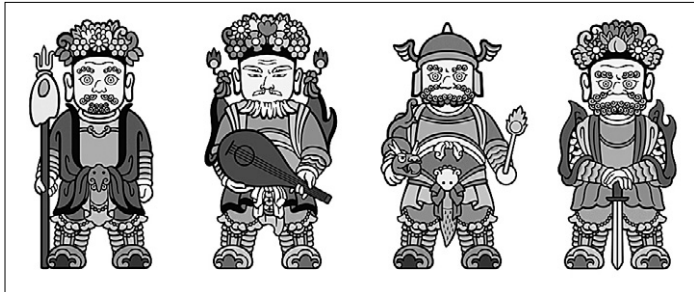
## 봉은사 1215년 개산대재 어린이 위한 ‘사천왕과 친구되기’ 인기 만점

미래 불교 동양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개산대재 행사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10월 18일 1215주년 개산대재를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천왕과 친구되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질문을 들어서면 만나는 덩치 큰 사천왕상이 귀여운 내 친구의 모습으로 변신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가갔다. 봉은사는 사천왕상의 협약한 모습이 무서워 집에 가는 것을 피했던 아이들을 위해 사천왕의 이미지 변신부터 시작해 사천왕상 캐릭터는 불법 수호와 불제자 외호 등 의미는 살리면서 어린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자인돼 인기를 독차지했다.

이번 행사에는 봉은사 산하기관인 저소득가정 청소년 복지시설인 달마학교 어린이를 비롯해 지역 어



봉은 문화사업단 '나무 물고기'의 대표 캐릭터 수호사천왕.

린이들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봉은사에서 배포한 사천왕에 대한 학습자료를 읽고 문제를 풀고 사천왕과 사진찍기, 대웅전 참배, 경전 인경, 미륵부처님께 인사하기 등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사천왕의 의미를 바로 알고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어린이

들도 봉행했다. 한편 봉은사는 개산대재를 맞아 문화사업단 '나무 물고기'를 출범시켰다. 문화사업단은 어린이를 위한 사천왕상을 비롯해 비천 양장노트, 연아 보살 캐릭터 카드, 핸드폰 고리, 봉은사 계절 엽서, 사천왕 액자, 사천왕 티셔츠, 사천왕 문구세트, 사천왕 스티커 세트, 전통한지 마당, 개마고원 주먹나무 염주세트 등 11종 42개의 상품을 개발 출

시했다. 문화사업단 대표 캐릭터인 수호사천왕은 차후 게임 등 디지털 제품에도 등장시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간다.

문화사업단은 기존의 공양물위주의 용품에서 벗어나 개인기도용품과 문화상품, 서적 등으로 신행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의 디자인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기존 중국제품의 조악함을 떠난 모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은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전통 등(燈) 개발 및 등 문화 확산운동, 캐릭터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선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남북불교교류, 강연이나 활동체험 등을 통한 문화 습득, 체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신계사 남북합동 법회 봉행

## 리규룡 부위원장 “합동법회가 통일 앞당길 것”

남북 불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불교성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남측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북측 조 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10월 13일 오후 2시 신계사 대웅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5타의 범종 타종으로 시작돼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후 남측과 북측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며 마음을 모았다.

조불련 리규룡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신계사는 6·15통일시대에 북남 불교도들이 불신화함으로써 이뤄낸 통일불사의 결과물이다”며 “신계사가 민족통일의 장이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며 오늘 합동법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회 김명희 위원(왼쪽)과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회가 그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남과 북의 불교도들은 힘과 지혜를 모아 신계사와 금강산을 보전하고 지켜 나아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불교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과 북측 조불련 전국신도회 김명희 위원이 함께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이 강국의 손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는 나라, 통일되고 번영하는 현세를 통해 ‘신계사는 6·15통일시대에 북남 불교도들이 불신화함으로써 이뤄낸 통일불사의 결과물이다’며 “신계사가 민족통일의 장이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며 오늘 합동법

박선주 기자

## 대불청 서래 노인요양센터 개소

### 강북청소년수련관 12월에 라오스봉사

한국 불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불자들이 국내외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전 세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어 화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는 10월 1일 서울 번동 재가 장기 요양복지시설인 ‘서래(西來) 노인요양센터’를 개소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래 노인요양센터(센터장 윤숙현, 이하 서래, 02-939-0079)는 65세 이상 홀·재가 노인장기요양보훈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파견 재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하루 4~5시간 방문목욕, 방문요양을 통해 각 가정의 노인수발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대불청 지구 지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서래는 고령 및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신 스님, 재가자들의 복지 및 권익향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대불청 회원들의 포교 실행의 장이 될 전망이다. 윤숙현 센터장은 “단순한 노인 요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종교 부분도 고려해 연계해 서로가 종교적인 대화를 통해 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불교발전기금으로 회향하고 앞으로 노인요양원, 요양 병원, 실버타운 등을 목표로 불교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의지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불청과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은 12월 11~20일 라오스에서 의료·교육봉사 등을 펼친다. 대학생, 의료인,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미얀마 지역민과 문화축제, 무료진료, 구호 물품전달, 교육봉사활동 등을 실시한다. 의사 및 간호사, 음악·미술 전문가, 대학생 등 30명을 접수받는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접수는 10월 2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02)900-6650, www.nanna.seoul.kr

이상언 기자

## 한의사불자연합회 10일 창립

### 이수완 회장 “의료봉사를 기본으로 할 것”

의왕 보살의 화신 한의사 불자들이 불심으로 중생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10월 10일 창립축하 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조계종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는 한방의 날인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에는 포교원장 혜종 스님, 포교부장 제성 스님, 신도국장 정무 스님, 사무국장 원교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혜종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했던 것은 중생의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연구해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병든 이의 병원(病源)을 확실히 알아 진실로써 치료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수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와 한의학, 성불과 의도(醫道)는 모두 마음자리

에 근본을 두고 있기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며 “부처님의 교와 학이 마음속에만 자리해 있고 실제에 있어서는 생활화되지 못한 것은 불제자로서 제 역할을 못한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신행활동의 기본은 봉사를 통한 의료시혜”라며 “정기법회, 범·가을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의 생활화,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의사불자연합회는 조계종 신도 단위로 등록되면서 전국 11개 한의과 출신 불자 한의사들의 신행 구심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행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이상언 기자

### 신행기사관

●법륜 스님 전국순회강연=정토회 법륜 스님이 10월 17일~11월 6일 전국순회강연을 실시한다. 10월 17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18일 오후 7시 경주 신라문화체험장, 19일 저녁 7시 포항시청, 2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저녁 7시 청주 고인쇄 박물관, 30일 오전 11시 부산 디자인센터, 11월 3일 오전 11시 창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저녁 7시 진구 청소년수련관, 5일 저녁 7시 구미대학 본관 4층 강당, 6일 오전 11시 일산 덕양구 민방위교육장, 저녁 7시 분당 JS 웨딩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02)587-8994

기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자비명상, 호흡, 오체부지, 만트라 등의 체험 위주의 명상 수행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6만원으로 20명 선착순 접수. (02)735-2428

●위빠사나 명상코스=담마코리 아는 10월 22일~11월 2일, 4~15일 경북 상주시 푸른누리에서 위빠사나 명상코스를 실시한다. 코스 10일 전 과정 참여가 가능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가능. (054)536-9820

●하안기 집중수행=서울 상도선원은 10월 15일~2010년 1월 15일 하안기 집중수행에 들어간다. 새벽 4시~저녁 9시 수행을 개방하고 일방비는 자율보시. (02)815-3391

●강선희 명상교실=불교인재원은 10월 30일~12월 18일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불교인재원 선운당에서 강선희 명상교실 제 2

## 불교방송(BBS)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불교 현대화 의지를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경력이 있는 분.
2. 방송의 경쟁력향 및 전면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 경영 능력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을 불교방송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 ◇ 자 격 :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정관상 불교방송 사장 임기 4년 가능자)
- ◇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부 (사진 / 상벌사항 / 서명·날인 포함), ② 경영계획서 1부 (A4용지 5매~10매)
  - 불교방송의 특장을 살리는 프로그램 제작방향.
  - 사회적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방안.
  - 새로운 경제 및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방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안.
  - 재원 증대 확보를 위해 취할 조치 등.

- ◇ 제출일시 : 2009년 10월 28일(수) 정오까지
- ◇ 제출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02-719-1855, 교환 210)
  - ▷ 주소 :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 면담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 참고사항
  1.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의 복수 추천 후 BBS이사회에서 1명 선임(BBS 정관 제5조 5항)
  2. 기타 사장의 처우·복무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기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본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불선 합일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방문화 창달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대학원대학교입니다.

### 1. 모집안내

학 과	과 정 (지원구분)	모집인원
서화심미학과	석 사 (신입)	00명
불교문예학과	박 사 (신입)	00명
자연치유학과	석·박사통합 (신입)	00명
미래예측학과	연 구 (신입)	00명
문화정보학과	외 국 인 (신입)	00명
조형예술학과		

### 2. 전형일정

- 【원서교부】 2009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 【원서접수】 2009년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 【전형일자】 2009년 11월 7일(토)
- 【합격자 발표】 2009년 11월 18일(수) 본교 홈페이지

### 문의 및 안내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전화: 02) 3668-9811.12
- 팩스: 02) 3668-9899

- 3.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연구과정은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